



답음

현대중 3-2 명은솔

자개 옷장의 낡은 앨범 속 사진에선
나보다 더 어린 모습을 하고 있는
천방지축의 여자아이는

온습한 골목 한편에 자릴 잡아
나보다 더 밝은 웃음을 가지고,
달큰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

제 수명을 다해 닳아버린 앨범에
누렇게 색이 바래버린 사진들을
한껏 빛내주고 있었다.

거미줄이 얽힌 책장 속 단정한 앨범에선
자신의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
강인한 모습을 한 남자아이가

어린 동생들에게 옆을 내어주며
한겨울 속 차디찬 방 속 공간에
따뜻한 난로가 되어 있었다.

뿔뿔하게 굳어 버린 앨범도
어느새 사진 속 따스함에 취해
제 몸을 녹아내고 있었다.

그 앨범 속 두 아이는 이제
한 가정의 의젓한 부모의 모습을 한 사진에 담겼고
나는 사진 속 두 아이를 닮아 있었다.

어느새 매끄러운 앨범에 담긴
그 두 아이의 모습을 한 내가
사진을 밝고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다.

